"밴너 한방에 보내주마"

최홍만, 내일 오후 4시 日서 K-1 16강전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26)이 입식 타격 대회인 K-1에서 '무관의 제왕' 제롬 르 밴너(34·프랑스)를 꺾고 강호로 거듭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최홍만은 30일 오후 4시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K-1 2006 월드그랑프리 오사카 개막전' 16강 토너먼트에서 3분 3라운드 방식으로 밴너를 맞아 8강 진출권 티켓을 노린다.

지난 6월 서울 대회에서 2005년 K-1 챔피언 세미 쉴트(네덜란드)를 제압한 최홍만이 밴너마저 제압할 경우 입식 타격 무대에서 더욱 확실한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밴너는 지금까지 최홍만이 대결했던 상대와는 차원이 다르다.

190㎝,120㎏의 체격의 밴너는 최홍만(218cm·158kg)에 비해 크지 않은 체구지만 상대를 언제든지 한방에 보낼 수 있는 강펀치를 소유한 데다 맷집도 뛰어나고 쉽게 쓰러지지 않을 정도의 체력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펀치와 킥을 자유 자재로 사용하는 밴너는 K-1 데뷔해 인 1995년 월드그랑프리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1999년 3위, 2000년 나고야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을 정도로 꾸준한 실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5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회에서도 최홍만에게 유일한 패배를 안긴 레미 본야스키(네덜란드)를 판정승으로 이기기도 했다.

그렇다고 최홍만이 밴너와 비교해 객관적인 전력에서 크게 밀리는 것은 아니다.

일본 오사카 명문 도장인 정도회관에서 맹훈련을 하며 복싱 뿐만 아니라 로우킥(하단 차기)과 니킥(무릎 차기) 등 발차기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최홍만은 최근 K-1에서 3연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통산 전적도 지난해 3월 데뷔 이후 9승(3KO·2TKO)1패가 돼 K-1 강호의 반열에 이름을 올릴 만큼의 성적도 거뒀다.

게다가 나이 서른을 훌쩍 넘은 밴너가 최근 팔과 무릎 부상으로 컨디션까지 안좋아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격투기 전문가는 최홍만의 승리를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정순옥 한국新 2개

대구 국제육상 멀리뛰기

이신바예바 세계新 실패

28일 대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06 대구국제육상대회에 출전한 여자장대높이뛰기 세계 챔피언 옐레나 이신바예바가 도약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녀새' 옐레나 이신바예바(러시아)가 달구벌에서 화려한 고공쇼를 펼쳤지만 세계기록에는 미치지 못했다. '황색 탄환' 류시앙(중국)은 마지막 14m를 남겨두고 거짓말 같은 역전 질주를 펼쳐 옛 우상이자 라이벌인 알렌 존슨(미국)을 따돌렸다.

이신바예바는 28일 대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06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여자 장대높이뛰기에서 4m70을 넘은 뒤 4m80에 도전했으나 세 번 모두 바를 건드렸다. 이신바예바는 올해 마지막 대회에서 자신의 세계기록(5m01) 경신을 욕심냈지만 31㎝나 모자랐다.

한국기록(4m05) 사냥에 나선 최윤희(원광대)는 3m70을 넘고 3m90으로 바를 높였으나 넘지 못했다. 류시앙은 남자 110m 허들 레이스에서 스타트가 늦어 10번째 허들을 넘을 때까지도 존슨에게 뒤졌으나 마지막 허들을 넘은 뒤 결승선까지 남은 14.02m에서 놀라운 스피드를 뿜어내 13초14로 1위를 차지했다.

전 세계 챔피언 존슨은 류시앙에 불과 100분의 2초 뒤진 13초16.

류시앙은 '스타트는 결코 빠르지 않지만 마지막 허들을 넘을 때 가장 빨라진다'는 자신의 말처럼 짜릿한 역전 레이스를 펼쳤다. '한국 허들의 희망' 박태경(광주시청)은 자신의 한국기록에 0.2초 모자라는 13초91에 그쳤다.

정순옥(안동시청)은 여자 멀리뛰기에서 하루 두 개의 한국기록을 작성했다. 정순옥은 2차 시기에서 6m55를 뛰어 팀 선배 김수연(안동시청)의 종전 한국기록(6m53)을 2㎝ 늘린 뒤 4차 시기에서는 무려 13㎝를 더 뛰어 6m68로 두 번째 한국기록을 세웠다.

27년 묵은 남자 100m 한국기록(10초34) 경신에 도전한 전덕형(충남대)은 10초68에 그쳤다.

29일(금)

▲코리아오픈 테니스 대회(14 : 00·KBS 2)

▲자넷 리 초청 당구대회(14 : 45·MBC)

▲메이저리그〈탬파베이-클리블랜드〉(07 : 55·Xports), 〈샌디에이고-애리조나〉(11 : 00·Xports)

▲프로야구〈현대-한화〉(18 : 00·KBS SKY Sports, 18 : 15·SBS스포츠), 〈두산-롯데〉(18 : 30·MBC ESPN)

▲KB 국민은행 스타투어 3차대회 2R(14 : 00·MBC ESPN)

▲전국대학배구 추계대회(14 : 00·KBS SKY Sports)

박지성 극비 입국

대외활동 없이 휴식

왼 발목 인대가 찢어지는 부상으로 접합수술을 받은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극비리에 귀국했다.

박지성의 에이전트사인 JS리미티드는 28일 "박지성이 지난 26일 오후 네덜란드항공편으로 입국해 현재 수원 자택에서 외부행사에 일절 나서지 않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를 전후해 영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성의 입국 일정이 알려지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돼 모든 일정을 비밀로 했다는 게 에이전트측 설명이다.

JS리미티드측은 "맨유에서 특별 휴가를 줬다. 이번 방한기간 대외활동 없이 철저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게 된다"며 "다음 주 초쯤 구단 재활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한 귀국 일정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팀 무단이탈' 박은선 AG 못 뛴다

여자축구 대표팀 18명 명단 확정

대표팀 무단 이탈로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여자축구 간판 스트라이커 박은선(20·서울시청)이 결국 2006 도하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대표팀에서 제외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안종관 감독이 제출한 아시안게임 여자 축구대표팀 18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명단에는 지난 2003년 미국 여자월드컵에서 활약했던 이지은(27), 김결실(24), 김정미(22·이상 현대제철), 홍경숙(22·서울시청)을 비롯해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정정숙(24·대교) 등 경험많은 선수들과 정혜인(16), 지소연(15·이상 위례정산고), 김수연(17·강일여고) 등 '젊은피'가 포함돼 신구 조화를 이뤘다.

또 일본에서 활약중인 '해외파' 수비수 이진화(19고베 아이낙)도 발탁됐다.

하지만 지난 5월 대표팀 소집훈련에서 두차례나 대표팀을 이탈해 파문을 일으켰던 박은선은 징계기간이 끝나지 않아 아쉽게 아시안게임 엔트리에서 빠졌다.

힝기스 탈락 대이변

한솔 여자 코리아오픈테니스

'알프스 소녀' 마르티나 힝기스(8위·스위스)가 총상금 14만5천달러가 걸린 2006 한솔여자코리아오픈 단식 2회전에서 충격의 패배를 당해 탈락했다.

톱시드를 받고 출전한 힝기스는 28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테니스 센터코트에서 벌어진 2회전에서 인도의 '떠오르는 별' 사니아 미르자(59위)에게 1-2(6-4 0-6 4-6)로 역전패, 쓸쓸히 짐을 싸게 됐다.

지난 주 인도에서 벌어진 선피스트오픈 4강전에서 미르자를 2-0(6-1 6-0)으로 누른 뒤 우승까지 차지한 힝기스는 불과 1주일도 채 안돼 한국에서 벌어진 리턴 매치에서 무릎을 꿇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